

고려대 성대 입장 기록

고려대 총학생회장,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의 성폭력과 사퇴에 대한 연세대 총여학생회의 입장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지난 1-2주 사이,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이 여학우들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해, 그 책임을 지면서 공개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폭력으로 총학생회장들이 사퇴하는 일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그만큼 대학 내 성폭력의 문제가 많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성폭력에 있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들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제31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옥 씨의 성폭력과 공개사퇴

사건 개요 : 본 성폭력 사건은 6월 13일 그간의 활동을 총화하는 자리로서의 술자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진행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총학생회장은 함께 자리한 여학우들에게 귀와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 당시 피해 여학우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학우에 의해 총학생회장이 뺨을 두 차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계속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총학생회와 피해자 측은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고려대 여학생위원회가 포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책 활동을 하면서 총학생회장의 사퇴로 일단락 맺어졌다.

이후 대책 : 총학생회와 여학생위원회는 일단, 사건의 성격을 “성별 위계적인 권력구조로서의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김지옥씨의 사과와 31대 총학생회의 사과문을 공개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직위상 2만 학우를 대표하는 직선간부라는 점에서, 학우들이 부여한 권력이 성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기에 학우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반납하고 학우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마땅히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현재 김지옥 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명목으로 구속 중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총학생회장 직에서 사퇴했다.

제30대 명륜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씨의 성폭력과 공개 사퇴

사건 개요 : 지난 6월 총학생회장은 한 뒷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대의 총/부총학생회장 여학우들에게 ‘네 속옷 사이즈는 XX 정도 되겠다’라는 등의 성적인 농담과 엉덩이를 툭치며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곤 술이 취하자 옆자리에 앉았던 여학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다른 여학우가 문제제기하자 진지하게 고민하기 보단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였다.

이후 대책 : 이 사건 이후 총학생회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총학생회장에 대한 무기한 금주조치, 공식 활동제한 조치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으며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속에서 총학생회장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임을 인정하였다. 그 후 총학생회는 자진사퇴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뒤 중앙운영위원회 등 여러 공간에서 논의하여 공개사퇴라는 가장 수위높은 조치가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고려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일이 명백한 성폭력임으로, 그리고 전체 학생들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어 버렸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개사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지 또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생운동 진영 내부에도 은연 중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한 성적 편견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숙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총학생회장들의 성폭력은 어느 특정 학교, 어느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의 대책위와 성균관대 총학에서 이미 규정했듯이,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어느 부도덕한 남성과 문란한 여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균등한 권력이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특징짓는 것은 바로 가해자들이 학생회 간부, 더군다나 학생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생회 간부들에 의한 성폭력은 이미 은연 중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초 동국대 동아리연합회의 선전국장을 맡고 있던 남학생도 성폭력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권위의식(간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속에서, 그리고 여성 문제가 전체 학생운동 속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사상적, 조직적 분위기(학생운동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여성들의 억압과 피해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속에서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던가 은폐되어버렸습니다. 여학우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학생사회에서 여성들의 소외를 가져다주는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의 결정과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올바른 방향이었으며 성숙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은폐가 아닌, 진지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을 무릅쓰고 문제제기한 피해 여학생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은 여성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발언하기에 너무나도 심리적 부담감이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성폭력의 안전지대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타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두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에 대하여

여태까지 성폭력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일삼은 언론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총학생회장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 건 잡았다!' 식의 태도가 일관했습니다.

하나, 성폭력을 선정적인 문제로, 또는 하나의 가십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고려대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들의 성폭력을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